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현충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음 5월 25일) 제231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올 하반기 공공기관 직무인턴 오리엔테이션 도내 대학 재학생, 휴학생 및 미취업 청년들에게 전공분야의 공공기관에 배치해 인턴경험을 통해 업무역량을 키우고 취업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을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인 '2019 하반기 공공기관 직무인턴 오리엔테이션'이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나석훈 전북도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100여명의 직무인턴 참여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새만금, 친환경 전기차 생산기지로

에스엔케이모터스, 전북도-군산시-개발청 등과 투자협약 새만금산단에 1118억원 투자 1520여명 고용 창출 노력

최근 대내외적인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가 친환경 전기차 생산을 통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친환경 전기차 제조기업인 에스엔케이모터스(주)와 새만금산단단지 내 전기자동차 제조공장 건설 및 제품 생산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손을 맞잡았다.

26일 시에 따르면 김임준 군산시장,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최용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조석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단단지사업단장과 이방우 에스엔케이모터스 대표이사는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에스엔케이모터스(주)는 새만금산단단지 장기임대용지 31만4000㎡ 부지에 총 1118억원을 투자해 1520여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군산시의 새만금개발청, 전북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을, 농어촌공사는 기반시설 및 용지 공급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지난 5월말 새만금산단단지에 에디슨모터스(주) 등 4개 기업을 유치하고 얼마 전 한국지엠 군산공장에 (주)명신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에스엔케이모터스(주)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시를 전기차 및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최근 어려워진 지역경제 상황을 이겨내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전망이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에스엔케이모터스(주)의 대규모 투자 결정으로 친환경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전기차 관련 기업과 부품 제조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어 군산의 미래 산업을 변화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일 INDEX
2면 -전북 동부권 발전위원회 개최



친환경 전기차 제조기업인 에스엔케이모터스(주)가 26일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에서 전북도,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 권역별 실패박람회 합동평가회 개최

실패의 경험을 두 번째 기회로 삼아 재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는 대한민국 실패박람회의 각 권역별 합동평가회가 전주에서 열렸다. 전주시와 행정안전부, 권역별 실패박람회를 개최한 강원도, 대전, 대구는 26일 전주 향교문화관에서 정부 관계자와 실패박람회 개최 지자체 관계자, 2020년 실패박람회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권역별 실패박람회의 개

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합동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합동평가회는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종합 박람회의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실패박람회 in 전주"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전주시가 다양한 사회적신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수소경제 분야 협력 약속

한-사우디 정상회담

양국 정부, 2건 양해각서 체결
선박 등 83억 달러 규모
투자·기술협력 8건 MOU도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26일 두 나라 사이의 자동차 분야와 수소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간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했다.

또 두 나라 기업은 석유·로봇·선박 등 분야에서의 총 83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투자 및 기술협력을 약속한 8건의 MOU를 별도로 체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사우디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디 사우디 왕세자가 임석한 가운데 자동차 협력, 수소경제 협력 등 2건의 정부 간 MOU 체결식을 개최했다.

자동차 협력 MOU에는 ▲친환경차 기술협력 ▲자동차 부품개발 ▲사우디 진출 관심 기업 발굴 등을 위해 두 나라 정부가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수소경제 협력 MOU에는 ▲수소 생산·저장·운송 기술협력 ▲수소차, 연료전지, 충전소 보급 및 활용 ▲표준 및 모범사례 등과 관련된 두 정부 간 협력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2건의 MOU 체결을 계기로 향후 친환경 및 내연기관 자동차, 수소 에너지 공급망 확보, 수소 연료전지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중장기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정부 간 MOU 외에 에스오일, 현대중공업, SK, 한국석유공사 등 국내 기업과 사우디 왕립기술원,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사우디 석유화학기업 AGIC 등 사우디 기업 간 총 83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8건의 MOU 및 계약 체결도 이뤄졌다.

전주시, 국가예산 확보 '집중'

김승수 시장 등 기재부 찾아 산학융합플라자 건립 등 건의

전주시가 전주발전을 이끌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편성에 착수한 기획재정부 설득에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6일 기획재정부 주요 실·국장을 방문해 지역 발전을 이끌 주요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서 제출한 국가예산안에 대한 1차 예산심의를 진행한 후 다음달부터 2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시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등을 차례로 방문해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 △산학융합플라자 건립 △전주한옥마을 무장에 복지관광 선도지역 조성 △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사업 등 주요사업의 국가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이날 국가예산 활동에는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이 동행해 산학협력기반 집적화를 통한 산학연 협력강화를 바탕으로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학융합플라자 건립'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기재부 심의가 마무리되는 8월말까지 상황변화를 주시하면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현안사업은 발 빠르게 움직여 적극적 설명과 함께 대응능력을 발휘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앞서 도점적 대응으로 그동안 쌓아온 중앙부처 및 국회 내 인적 네트워크 활용과 체계적인 사전준비로 국가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이 직접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군산입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